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 '백투스쿨 연합 예배'

새학기 개학을 맞은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성경말씀으로 격려하기 위한 연합예배가 지난 8월 17일 있었다. 이날 예배 중 성경암송 퀘마장학금 수여도 있었다. 금년에는 선교사를 자녀를 포함 총 45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사진 송기영 집사·관계기사 3,8면>



'돌봄과 섬김' 차세대 양육

■ ICKidz 일일교사훈련

지난 8월 16일 'One Day Teacher's Training'이 있었다.

'2025-2026 새 학년 새 학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마음으로 IC-Kidz의 모든 부서 (IC-Love, Happy, Joy, Now, Power)에서 2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 토요일 하루 꼬박 공을 들였다.

좋은 기억으로 또는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선생님'에 대한 추억의 보파리를 풀며 시작된 이번 훈련은 각자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섬김과 돌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서로 공감해주며 훈련의 막을 올렸다.

곧이어 김지현 목사는 '모세'와 '에스더', 그

리고 '마가'가 구속사에서 자신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데에는 장인 르우엘, 모르드개, 바나바의 '돌봄'과 '섬김'이 그 뒤에 있었음을 지목하며, 한 사람의 섬김이 섬김을 받는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온 민족과 열방을 이롭게 하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로 그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에서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 'The Gospel Project' 커리큘럼과 하반기에 교육국의 행사들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한 후, 이제 IC-Kidz를 위해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다 함께 기대해보자는 의미로 예배실에 묵은 때를 청소하며, 교사 훈련을 마감했다.

<김지현 목사> <관계기사 10면>

억울한 종신형 '옥중 전도자' 케니를 구하자

■ 주안에호프 '감형 서명 캠페인'



케니 리 형제(사진)의 억울한 사연을 아시나요? 그는 비록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미국에 이민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25년간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신학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그곳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케니 리 형제가 다시 자유의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감형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김정아 권사·주안에호프 팀장> <관계기사 6-7면>

‘따뜻한 교회 분위기, 목자들 환대 한가족 같아’

■ 33번째 주안에 만남

33번째 ‘주안에만남’이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새가족실에서 있었다. 담임목사와 직접 만나는 첫 뱅킷 형태의 모임인 ‘주안에만남’에서 새가족들은 주안에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담임목사로부터 직접 소개 받는 시간을 가졌고 주안에교회에 오게 된 동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주안에만남’에는 21명의 새가족들이 참가했다.

새가족국에서는 이번 주안에만남의 테마를 ‘여름’으로 정하고 시원하고 깔끔한 테이블 세팅을 준비했는데, 새가족들은 새가족실에 들어오는 순간 아름다운 데코에 환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새가족국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홈메이드 콘 수프와 샐러드, 함박스테이크 정식이 점심 식사로 제공되었다. 이충환 담임 목사는 이날 직접 음식을 서빙하며 새가족들을 환영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이충환 담임목사와 새가족들이 서로를 소개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새가족들은 주안에교회에 오게 된 동기를 함께 나누면서, 좋아하는 음식과 별명 등을 소개했는데,



이충환 목사는 새가족들이 소개한 내용으로 퀴즈를 진행하여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했다.

새가족 안종현, 한이슬 성도 부부는 주안에교회 출석한 지 두 번째 주일에 주안에만남에 참석했는데, 교회에 오자마자 아가페 영커플 공동체의 목자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따뜻한 가족같이 자녀들도 바로 교

회에 적응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상현, 신제니씨 성도 부부도 영커플 목장에 적극적인 새가족인데, 자녀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아가페 영커플 목장을 통해 신앙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번 주안에만남은 참석한 새가족들에게 주안에교회의 따뜻한 분위기를 경험하게 하는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

‘소외된 이웃 찾아 예배와 나눔을’

■ 홈리스 사역 / 주안에네이버



어느덧 2년이 되어가는 주안에네이버(홈리스 사역)에서는 노스리지에 위치한 트레벡센터에서 매주일 오후 예배와 음식 봉사로 삶에 힘들고 지친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 후에 주안에네이버에 동참을 지원하신 여러분들은 교대로 순번을 정해 한 주에 보통 6~7분이 조를 이루어서 주일 오후 5시~6시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6시~7시까지 식사를 서빙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분들은 매일 딱딱한 직원들만 보다가 웃으며 인사하는 저희를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길거리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자립을 위해 들

어오신 분들, 질병으로 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워 들어오신 분들, 갑자기 보금자리를 잃고 홈리스가 되신 노인 부부 등, 트레벡 센터에서 100여 명의 희망을 꿈꾸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전하고 만나고 알아가는 일에 봉사자들의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합니다.

8월에는 단기 조인(한 번 참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2-1 목장에서 두 분이, 셋째 주에는 4-3 목장에서 여섯 분이 조인해 주셨고, 8월 마지막 주에는 EM에서 맡아서 진행해 주었습니다. 귀한 사역에 참여할 손길이 기다립니다. 단기 동참을 원하시는 목장이나 성도님들은 대니 구 총무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무 임가희 권사>

영어 VBS 통해 학생들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

■ 일본 단기 선교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주안예교회 선교팀은 일본 미야기현 도메시에 위치한 동명국제 그리스도 동명교회에서 여름 영어성경학교와 지역 교회 협력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교에는 총 16명의 팀원이 참여했으며, 말씀과 찬양, 영어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4일간 진행된 여름성경학교는 창조, 죄, 예수님, 구원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유치부부터 청소년, 성인 초급 영어반까지 반별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그림과 노래, 율동을 통해 배우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었고,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에 힘을 더해주었습니다. 또한 일본어와 영어 찬양, 공예와 게임, 요리 활동 등을 통해 현지인들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었으며, 주일예배 특송과 말씀 나눔을 통해 교회와 지역 사회에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역에는 약 45명 이상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꾸준히 참여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처음으



로 복음을 듣는 이들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었지만, 찬양과 손동작, 단순한 영어 표현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선교팀과 현지 교회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단순한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안예교회는 앞으로 도메 지역 교회와의 관

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모든 사역은 교회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번 경험은 교회 가 함께 깊어져야 할 선교적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도메 지역의 교회와 어린이들이 복음을 계속 배우고 자라가며, 이번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태용 장로 · 관계기사 4면 >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축복 기도

■ 백투스쿨 연합예배 / 장학금 수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사랑이 넘치기를...’ 지난 8월17일 주일 2부 예배는 부모세대와 자녀들이 함께 연합예배로 드렸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강단에 오르게 한 후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자녀를 축복하는 파송식이었습니다.

주안예교회 전 세대가 함께 찬양을 부른 후 담임 이종환 목사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며 즐겁게 보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해나가자” 라는 당부 말씀을 하였다.

지식과 바른 인격을 함양하는 배움의 터가 되



어야 할 학교가 진보적 인본주의와 세상의 가치관에 경도 돼, 크리스천 학생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유혹하는 영적 전쟁터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도의 사명에 쓰임 받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어 제7회 주안예교회 세마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는데, 6개월간 성경암송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된 29명 학생들과, 선교사 자녀 14명, 총 4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 Staff Writer 나형철 · 관계기사 8면 >

■ 일본 선교를 다녀와서...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영적 무지’에 가슴 아파

■ 윤세희 권사

“우와.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연다고?” 이번에 일본 선교를 다녀오며 동명국제그리스도교회의 성도님들을 만나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처음 만난 선교사님 부부와 성도님들은 우리 선교팀을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들처럼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앞에서 열심히 인도하는 선생님과 달리 아이들은 쭈뼛쭈뼛 하였고 그 중에 특히 내 눈에는 구경하듯 구석에 모여서 바라보기만 하는 중고등부 여자아이들이 보였다. 그러나 캠프 이틀, 삼일이 되는날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신나게 따라하는 모습이 마음이 몽클해지기도 했다. 금요일에 있던 날 캠프에 참석한 중학생 여자아이들의 엄마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집사님께서 먼저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자기딸이 집에 와서 이번 캠프에서 찬양 율동을 하며 찬양을 이렇게 크게 틀고 행복한 모습으로 할수 있구나 하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만두었던 피아노를 다시 치며 친구랑 자기도 예배를 우리처럼 드리고 싶다는 비전이 생겼다며 간증을 했다는 것이다.

집사님이 내 손을 붙들고 “우리딸이 이번 캠프의 열매예요”라며 딸이 이런적이 없는데 이번에 달라졌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란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러면서 비슷한 나이의 공감대에 금방 마음을 여시며 묻지도 않은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시며 “우리 카톡친구 해요”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적극적인 태도에 나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먼 미국땅에서 온 낯선이에게 금방 마음을 여는것에 그분들이 그동안 외로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 김수지 권사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왜 하필 일본으로 선교를 가기로 했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선교의 모습은 가난과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제 인생 첫 선교지로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두 경험을 비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는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을 크게 울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육체적으로는 편안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힘든 곳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 억압, 외로움, 그리고 영적으로 갇혀 있는 듯한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살아 있는 신앙이라기보다는 문화적 관습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전해져야 하는지, 특히 일본에서 더욱 그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공허가 자리한 선교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선교가 무엇인지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영적인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 선교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

‘땅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소통 창구역할을 맡아 하면서 어느듯 정이 들고, 선교현장에 가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담당교역자 민 에스더 전도사)은 대륙별로 5개팀으로 구성, 각각 6-7명의 선교사들의 매달 기도제목, 선교지 소식을 받아, 교회 중보기도팀에 전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팀별로 매일 선교지의 제목을 카톡방에 올려 기도하고, 매달 전체모임을 통해 주안에교회가 단지 선교현금을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과 실질적으로 동역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영커플 Life & Faith

모든 상황에서 찬양

■ 찬양팀 권경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주안에 교회로 인도하신 지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주안에 교회에 오기 전, 서부로 이사 온 후 지난 7년 중 처음 4년은 많은 고비와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지혜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낮은 곳으로 치우렸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더 이상 저에게 찬양의 대상이 아닌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주안에교회로 인도하셨고, 지난 실망과 좌절이 저를 위한 훈련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아가페 영커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하시고,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금요 예배 기도 중에 "이제 나한테 미워 났던 거 갚아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내성적이고 보잘것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찬양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 저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 사랑함을 숨기지 않고 끊임없이 찬양하기를 바라며 찬양팀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멘토님들과 요즘 더욱 단단하게 하나 된 저희 영커플, 그리고 언제나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주안에 교회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끄심 따라

■ 새가족 헨리 신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결정은 아주 큰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실때 어떤 문들을 닫으십니다. 저희는 팜데일에서 산타클라리타로 이사하면서 2년 동안 사랑과 우정을 쌓은 교회 가족을 떠나 새로운 교회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잃지 않으면서도 아내와 제가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영어 예배가 있는 한인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이유 때

문에 주안에교회는 고려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영어예배는 오후 1시지만 어린이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맞은 사람들을 알맞은 자리에 두신 덕분에, 한국어 예배에 통역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안에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안에교회를 방문한 날, 저희는 주차장에서 몇 걸음 나가기도 전에 환영 인사를 받았고, 저희 두 아이를 위해 IC-KIDS로 안내받은 뒤 본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도 저희는 바로 점심 자리로 안내받고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주안에교회를 저희의 새 교회로 삼기로 정하고 돌아왔을 때, 이 목사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했던 저희한테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완벽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안에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믿으며, 주안에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다른 성도님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쌓아가길 기대합니다.

‘주안에신문’은...

2013년 주안에교회 창립 이래 매월 발간해 오고 있는 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회 행사와 사역구 소식, 교우들 동정과 기도 등 다양한 내용을 커버합니다. 교회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소통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주안에신문은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원고 및 사진 접수 icccnews123@gmail.com)

Staff Writers - 조용대(팀장) 오희경(부팀장) 나형철 이예스터 이원근 류명수 이현영 송명진 이현주 사진 - 윤석중 송기영

주안에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이 본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옛 동료 갱단원 허위 증언으로 ‘종신형’

■ 케니 리 감형 캠페인

-케니 리는 누구인가요?

한국전쟁 직전, 공산당을 피해 한국으로 이주해 온 화교인 부모의 4남매중 막내로 1971년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화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고 14세가 되던 해 LA 한인타운으로 가족 이민을 왔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정착했으나 언어장벽으로 인해 학교에서 무시와 조롱을 겪었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거리를 배회하다가 갱단의 멤버 친구를 사귀게 되고 가족과 학교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는 갱단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후 갱단 활동을 멈추고 사회인으로 살아가던 1999년에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25년째 복역중입니다. 무죄를 증명하려고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한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케니 리 사건의 개요

1992년 그의 나이 19세에 코리아타운에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당시 갱단 소속이었지만 사건 당일에 갱단 동료들이 보석상 강도를 계획하고 케니에게 차량을 운전해 달라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뒤, 이미 수감중이던 다른 갱단 멤버 두명이 그를 택



케니 리 형제를 면회한 주안에호프 팀원들.

사역팀 지속적 편지 통해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

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여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케니는 사건당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부모님, 친척들과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재판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역팀과의 만남

2014년, 밸리지역 교회의 교도소사역팀이 보낸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한국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지만 지속적인 편지 교환을 통해 마음을 열고 사역팀의 진심어린 관심과 방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삶의 변화

2014년 사역팀과 서면을 통한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닫고 불교신자에

주안에호프 사역 팀원이 되어주세요

주안에호프는 간허있는 형제 자매들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며, 격려와 위로와 기도로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며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23명의 팀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역을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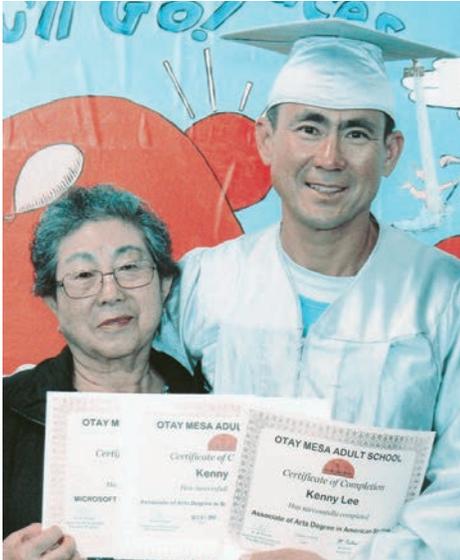
- 1) 방문 (Visiting): 교도소에 찾아가서 믿지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친구들에게는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방문허가가 있는 팀원) 금년 8월까지 누적 16명을 방문.
- 2) 중보기도 Post: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날에 그룹톡에 기도문을 올립니다.(현 12명의 팀원 참가)



- 3) DT멘토: 친구들이 보내오는 성경필사, 묵상과 적용을 받아서 읽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며 말씀 안에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7명의 멘토)
- 4) 케니 리 프로젝트: 주지사에게 보낼 감형청원서를 준비하며 주위의 지인들에게 사연을 알려 동참케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문의: 김정미 팀장>

수감 중 신학·상담학 공부 ‘섬기는 삶’



캘리포니아 수료 후 모친과 함께.



일간지에 소개된 케니 리스토리.

유를 되찾아 연로하신 어머니(86세) 생전에 세상으로 나오는 것과 그가 경험한 일들과 배운 학문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25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케니 리씨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선고 받았기에 주지사의 특별 감형으로만 세상으로 나올 기회가 주어 집니다. 주님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제자의 삶을 살고있는 한 지체를 위해 우리들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을 모아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한 영혼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케니 리 형제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서명운동에 함께 힘을 보태주시시오.

▲케니 리의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1018/1534671>

기독교일보: <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25431/20241225/>

미주복음방송 새롭게 하소서: 다시듣기 1월 8일, 9일: <http://kgbc.com/homeweb/programpage/37/13/78819>

< 주안에호프 사역팀 >

UC 편입 온라인 학업 계속 재소자들 위해 헌신

서 개신교로 개종한 뒤 그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여 신학공부를 시작해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교도소내 재소자들을 위한 상담자 자격훈련을 마치고 자격증을 획득하여 현재 교도소 내에서 상담가로 활동 중입니다.

작년에는 UC Irvine에 편입해 사회학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황** 케니 리 형제는 25년째 억울하게 복역 중이지만,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며 주위의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재소자 형제들을 삶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케니 리의 소망과 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25년간 빼앗긴 자

출소한 C자매 한국 정착 기도해주세요

짧지 않은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달 중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C자매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C자매님이 지내고 있는 곳은 여자 기숙사와 같은 분위기로, 자유로운 복장으로 생활하며 외부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C자매님은 무척 마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얻게 될 기쁨보다 한국에 남겨둔 자산을 모두 탕진하고 기벌 곳조차 없게 만든 지인에 대한 증오와 원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매님께 무슨 말로 위로해야할 지 고민되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시고 시련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말로 격려했습니다. C자매님은 지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며 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성경암송의 유익

손주들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길

‘아이들 훈육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케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데 손주들이 잘 따라주어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옳게 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둘째는 누워 있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주안에교회에서 4년전부터 매년 6-7장의 성경을 학생들에게 암송하게하는 쉼마 장학프로그램에 아이들은 참여시켰습니다.

성경을 읽게하고, 연습시키고, 점검하는 일은 저도 아이들에게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부지런함과 순종과 꾸준한 성품을 지닌 아이는 잘 따라왔고, 이해가 부족한 곳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교 전에 읽어 보게 하고, 하교 후에도, 여행 갈 때도 쪽지를 쥐어줬고, 전화로, 화상 채팅으로 잘 외우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세아(Olivia Um)는 이번에도 주어진 성경말씀 중 5장을 암송, 장학금 수여 때 강단 위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허물이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실수나 죄를 들추기 않고 덮어 주라는 말씀이지요. 암송을 통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마음 속에 새기고 자라나 이타적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쉐마(들으라)’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 처럼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화 권사>

■ ICY 수련회 봉사

자녀들 뜨거운 예배 은혜 가득

여러번의 수련회를 따라가면서 항상 다른 은혜를 받고 오지만 특히 이번 수련회는 나에게 잊지 못할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웃는 얼굴로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앞으로의 시간들이 기대가 되었고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클지 나의 마음이 다 설레었습니다. 매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은 젊음 강사인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학을 가는 아이들에게 주시는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면서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저 또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

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라와서 하는 섬김이 섬김의 시간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복의 시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녁 예배는 조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들 눈을 반짝이며 주시는 말씀에 귀기울이며 소리 높여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 아이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기에 이들의 마음에 심긴 말씀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강은숙·ICY 학부모 회장>

참된 자유의 비결

이번 “Young and Free” 여름수련회를 통해,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자유를 누리며 찬양하고 웃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느꼈습니다.

수련회 동안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얼마나 기쁘고 안전한

것인지 다시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가 아이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Young and Free의 기쁨이 아이들 삶 속에 계속 흐르길 기도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와 마음으로 동행해주시는 모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수련회를 위해 섬겨주신 교역자, 스태프, 봉사자 모두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유레아 집사>





Finding Faith, Friendship, and Freedom at Retreat

■ Collin Yi (Student)

The young and free summer ICY retreat has been by far one of the most fun and transforming experiences I had all year. I will keep my reflection short and sweet. I thought the retreat camp in particular was far better than

the rest I've been to, but unfortunately we didn't do any zip lining unlike ones in the past so I was a bit disappointed there. However, the food was great and the worship was even better.

Our cabins were very nice, like compared to the other retreats, the bunk beds were

actually comfortable in my opinion. Overall, going to this retreat with ICY and all my close friends whom I've been with practically my entire life made it all the more memorable. I am very grateful for this wonderful experience and for the opportunity to write this reflection.

■ Jenna Lee (student)

This year I was more excited for retreat than I had ever been before.

In the past, I always questioned whether I should even go, but this year I made sure I went. I was especially looking forward to the first night, but while I was praising, I realized my mind kept wandering. I was singing the words on the screen and raising my hands, but without truly focusing on God. Being born

a Christian, I think I often struggle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worship out of routine and worship out of genuine love. That night I felt like a poser, and I started to think that maybe this retreat wouldn't be as special as I had hoped, and that my relationship with God might not grow.

But on the third night, our guest speaker, Pastor David, spoke and said, "God is not looking for us to be a 'perfect' Christian" and "God wants our heart, not just

our service." All throughout retreat I had been doubting myself, wondering if I was really the Christian I thought I was. I realized I had been so focused on trying to prove to myself that I had a good heart for God, instead of simply allowing my heart to respond to Him. He only asks for a few seconds of my attention, yet I still failed to give Him even that. Even though I'm not worthy, I can confess to Him, because despite all I do wrong, He still loves me. God reminded me that I am His child.

■ Jeff Kwon (leader)

Spending time with the leaders and watching the way they loved the youth and served so faithfully was a huge blessing.

One of the greatest strengths of ICCA is that those who serve do it with genuine devotion and dedication. I sensed the leaders carried something I hadn't yet found, and I was excited to spend time with them and learn from

their example. Their heart for the youth was clear in the countless hours they poured into preparing, making sure every child had the chance to focus on God and encounter Him during retreat.

Seeing their service reminded me how much impact a life lived in love can have, and it inspired me to pursue that same kind of heart. Spending time with God's children reminded me that I am also His chil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 felt young before God again, letting go of my pride and allowing Him to speak to me.

Throughout the retreat, I truly felt the presence of God. It was a time of healing and seeking. I was able to anchor myself back in Him, our firm foundation. In serving His children, I was also reminded of my own identity as His child, and I felt free in a way I hadn't in years.

‘결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 영커플 / 주제가 있는 예배

지난 8월 23일, 저희 영커플은 “결혼, 그 거룩한 여정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라는 주제로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달 동안 기다려 온 설렘으로 영커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김지현 목사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목적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는 결혼이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동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위해 서로를 돕도록 세우신 거룩한 자리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 자신이지만, 배우자와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은혜와 감사를 느꼈습니다.

예배가 은혜롭게 드러질 수 있도록 여러 분들의 사랑과 섬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봉사자분들 덕분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

할 수 있었고, 영주의 도움으로 찬양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두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저녁을 함께 나누며, 모두가 예배의 기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섬김을 통해 ‘우리도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커플 예배는 결혼과 신앙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깊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유진>



■ 1일 교사 훈련 / 참가 교사들 소감

■ 김혜순 이번 모임의 교육을 통해 우리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 받은 것 같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막연히 사랑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 강진령 2025년 이벤트를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계획들이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 김수지 다음 세대를 위한 미팅 좋았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다음세대에 집중하고 서포트 해주며 다음세대를 미래의 주역으로 세워주고, 우리가 소망하는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길 강력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 이현숙 이번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차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 하나가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 나가는 발판이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더 겸



손히 섬기며 기도해야 하는 사명 또한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지혜 먼저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사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이들을 섬기는 중요성에서 다시 리마인드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뜻 깊은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이 저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 국경진 교사트레이닝의 필요성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IC - Kidz 미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다음세대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관념이 아닌 중요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해주길 소망합니다.

■ Su Jin Chang The teacher's training today was a special time with these serving for the same purpose.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our IC-Kidz growing with God and becoming leaders of our future. It was a wonderful time bonding with everyone and knowing the great love and hearts for our children. I was reminded that God is love and we know love because He loved us first.



50여 명 등록 열기... 특별활동 다양하게

■ 한글학교 새학기 개강

한 여름밤의 꿈처럼 달콤했던 여름방학을 뒤로 한채 부푼 떨림과 새학년 새학기의 새로운 서막이 열렸다. 8월17일 그간 잊고 있던 한글을 다시 되새기며 주안에 한글학교도 새로운 다짐과 설렘으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신청마감일까지 열띤 관심속 TA로 지원한 17

명을 제외 총 54명이 신청한 이번학기는 주안에 교회 교인 외에도 한글을 전혀 모르지만 한글을 배우고자 신청한 인근학생들과 외국인 친구들이 특히 많아 k-pop, k 드라마 등을 통한 한국어와 k문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과 변화를 새삼 깊이 실감하며 책임감을 더했다.

올해는 기존 미술반, 태권도반에 합창반, 연극반, 시와 문화를 재밌게 배우는 교양반 등

을 개설 좀 더 다채롭고 깊이있는 특별활동으로 아이들의 학식과 문화체험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매년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해 부족한 선생님수로 늘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그역시 넉넉히 귀한 자로 세우실줄 믿으며 아이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가르치실 귀한 선생님을 기다린다. 앞으로도 주안에 한글학교에 학부모님과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민에스터 전도사, 장정보 권사.

< Staff Writer 이현영 >

구약성경 사무엘하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폐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2대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7>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22>

왜 엘리압은 버리셨고, 다윗에게는 마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공평한 잣대로 사람들을 보시지 않고, 당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시는가,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은 엘리압과 다윗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셨는가.

성경은 잘 생긴 엘리압의 성품을 보여준다. 그의 인물 됴됨이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늑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무엘상 17:28>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온 막내 다윗을 향한 엘리압의 언사다. 손아랫 사람을 대하는 분노와 멸시, 편견으로 가득한 심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 말씀묵상노트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로 드러난다.

그럼 다윗의 중심은 어떠한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골 목동 시절, 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사무엘상 17:34-35>

부친의 말에 순종해 양치기 하던 때의 일화에서 그의 성실함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쌀피고 값이 나가는 양도 아닌, 물러 가도 큰 손해가 아닌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가장 닮은 그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다윗, 너의 중심

이 내 마음과 합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내 양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자 ‘작은자’를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목숨까지 빼앗는 만행을 저질르게 된다. 이방인 헛 족속 출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숨기기 위한 비열한 계략이 사무엘하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한 가난한 이웃이 애지중지하던 새끼 양 한마리를 부자 이웃이 빼앗는 비유로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 했을 수 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즉 같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10>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신다. 한 번 칭찬 받고 신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아니다. 다만 ‘작은자’를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반대로 ‘작은자’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는 가차 없이 치신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 Staff Writer 조용대·성경통독 25기 >

■ 주안에 ‘골때녀’

스트레스 싸악~ 자존감 쑹욱~

육아에 지치고, 제 삶은 오직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누구지?’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커플 와이프들끼리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처럼 우리도 여자축구팀 해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운동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시간은 어떻게 내지?”라는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작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공을 차며 흘리는 땀 속에, 제 안에 갇혀 있던 스트레스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뛰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축구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함께 가정 생활과 육아의 어려움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깊은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육아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이제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침표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하나님은 제가 ‘엄마’이기 전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매주 축구를 하며 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완전 재미... 예쁜 몸매는 덤

저는 아이들도 여럿이고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운동을 해야한다고 머릿속으로는 알고있지만 시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액티비티 라이드하고 아이들 스포츠 쫓아다니고 해야하는데 이 시간을 쪼개서 저를 위해 운동하러가야 한다는것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집에서 홈트도 해봤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영커플 집사님들을 주안에살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들의 같이 축구하자는 권유와 이제는 운동을 꼭 해야한다는 생각과 시기가 딱맞아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축구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운동하자는 일념으로 첫날 시작했는데... 이럴수가 이거 생각지도 못하게 완전 재밌습니다. 집사님들과 함께 훈련하고 뛰고 운 좋으면 골도 넣고 땀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제가 실력이 좀 더 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덤으로 다음날 아침에 몸무게 재보시면 단언코 두번째 자리 숫자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재미있게 운동할 곳을 찾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당장 조인하세요!!

<이영민>



‘내리막, 오르막’ 신앙의 여정 같네

■ 제5회 주안에산행 / Switzer Falls Trail

지난 8월 2일(토), 안수집사회에서 주최한 제5회 주안에 산행이 총 27명의 성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산행지는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독특한 역방향 코스였습니다. 마치 내려가야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우거진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과 졸졸 흐르는 개울은, 마치 주님의 위로와 공동체의 사랑처럼 우리의 걸음을 시원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폭포를 향하는 길은 사뭇 달랐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좁고 가파른 오르막을 묵묵히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마주한 시원한 폭포수는 모든 수고를 잊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산행을 마친 후에는 주차장 인근에서 정성껏 준비한 삼겹살과 해물라면 등 푸짐한 점심을 들며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안수집사회 총무 이원근>